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IAEA 모니터링 TF 4차 방일미션 보고서 발표

□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한국시간으로 5월 4일(목), 오후 16시경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토의 일환으로 올해 초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IAEA 모니터링 TF*의 4차 방일 미션('23.1.16~20)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IAEA가 일본 측 오염수 처분 계획의 국제기준 부합여부 및 규제 측면 등을 검토하기 위해 IAEA 사무국 직원과 국제전문가 11명(국적: **한국**,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호주, 캐나다, 베트남, 아르헨티나, 마셜제도)으로 구성

○ 이번 4차 방일미션 보고서는 지금까지 IAEA 모니터링 TF가 후쿠시마 원전 안전성 검증과정에서 발표한 5번째 보고서이다.

* IAEA 모니터링 TF 보고서 발표 : △1차 방일미션 보고서(도쿄전력 및 경산성 대상, '22.4.29), △2차 방일미션 보고서(NRA 대상, '22.6.16), △1차 확증 모니터링(오염수, 해양환경) 보고서('22.12.29), △3차 방일미션 보고서(도쿄전력 및 경산성 대상, '23.4.6)

□ IAEA는 이번 보고서에서 일본 원자력규제위(NRA)가 독립 규제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고 향후에도 규제 절차·조치가 IAEA 기준에 맞는지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IAEA는 환경 모니터링 등에 일본 내 여러 기관이 참여하고 있어서, 기관별로 분석 결과가 다를 경우,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NRA의 명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 향후 IAEA 모니터링 TF는 **확증 모니터링 보고서**(1차 오염수 샘플의 교차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오염수 배출 관련 모든 안전성 검토 대상 분야*에 대한 최종 결론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일측 배출 전 발표할 예정이다.

* ①방호 및 안전성 평가(도쿄전력 및 경산성 대상) ②규제 활동 및 절차(NRA 대상)
③오염수 및 해양환경의 독립적 샘플링, 데이터 확증 및 분석

□ 정부는 IAEA 모니터링 TF의 검증 과정 일정 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현재 원안위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전반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IAEA 종합보고서 발표 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결과를 도출하고 공개할 계획이다.

※ <참고> IAEA 모니터링 TF 보고서 원문 링크

https://www.iaea.org/sites/default/files/5th_alps_report.pdf

담당 부서 <총괄>	국조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임현진 (044-200-2379)
		담당자	담 당	신부섭 (044-200-2380)
<공동>	외교부 녹색환경외교과	책임자	과 장	김기현 (02-2100-7794)
		담당자	사무관	이상민 (02-2100-7746)
<공동>	원안위 방재환경과	책임자	과 장	심은정 (02-397-7351)
		담당자	사무관	김수일 (02-397-7355)
<공동>	과기부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책임자	과 장	박시정 (044-202-4660)
		담당자	담 당	이도연 (044-202-4663)
<공동>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오행록 (044-200-5280)
		담당자	담 당	목정임 (044-200-5287)
<공동>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송성욱 (043-719-2170)
		담당자	담 당	강성필 (043-719-2160)